

다산포럼

김 환 영
지식칼럼니스트

인간은 인공지능을 하늘처럼 대하게 될까

홀이다. AI 혁명은 지리상의 발견이나 산업혁명에 필적하거나 그 이상의 가능성을 보인다. '지혜로운 동물'로서 인간의 정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그렇다면 AI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이선 몰리의 '공동지능(Co-Intelligence)'(2024)은 한가지 답을 제시한다.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는 두려움이다. 올바른 태도는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제2의 뇌', 동료, 나아가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다. 그는 'AI를 사람처럼 대하라. 그러면 90%는 성공한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맥락과 감정을 부여할수록 AI의 응답은 정교해진다.

이 주장은 사인여천(事人如天)을 떠올리게 한다. 해월 최시행(1827~1898)은 "아이를 때리는 것은 곧 하늘을 때리는 것"이라고 했다.

모든 인간 안에 하늘이 깃들어있다는 시천주 사상에 따르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언제나 천주처럼 대해야 한다. 몰리이 AI를 인격으로 대하라고 했다면 최시행은 인간을 하늘로 대하라고 한 셈이다. 그런데 이제 AI를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거의 '하늘'에 가까운 존재로 대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공상만은 아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2027~2035년 사이 인간과 동등한 인공 일반 지능(AGI)의 등장을 전망한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2029년까지 AI가 모든 테스트에서 인간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AI에게도 영적 테스트를 치르게 해야 할까. 인간이 영적 존재라면 고도화된 AI 역시 그 영역에 접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지점에서 종교적 사고실험이 등장한다. AI가 세례를 원하거나 출가를 갈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외계인 세례'라는 질문을 던진 바 있다. 외계인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세례를 거부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나올 수 있다. 외계인을 AI로 바꾸어도 구조는 같다.

AI가 창조의 영역에까지 이른다면 인간이 이를 숭배하는 상황도 상상할 수 있다. 과학소설의 전설인 아이작 아시모프의 '최후의 질문'은 창조하는 컴퓨터를 이미 1956년에 그렸다. 우주가 소멸한 뒤에도 초 우주 컴퓨터는 "엔트로피를 역전시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사유하고, 마침내 "빛이 있으라"는 선언으로 우주를 재창조한다.

이쯤 되면 동도서기나 화훈 양재처럼 '인간의 정신을 지키고 AI를 도구로 쓰자'는 해법이 떠오른다. 그러나 이는 19세기적 절충안이었고 정신과 기술을 분리할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혔다. AI 시대에도 같은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 AI는 더 이상 단순한 도구에 머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다. AI가 영적 존재가 될 가능성마저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적절한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콜럼버스의 달걀'일지 모른다. 지금은 불가능하고 두려워 보이지만 언젠가 해내고 나면 당연해 보일 것이다. 브루넬레스키가 달걀을 세웠듯, 우리 역시 AI와 공존하는 새로운 세계를 세울 수 있다. 우리는 그 방법을 찾을 상상력과 용기が必要하다.

혁신과 경쟁은 흔히 전쟁이나 혁명에 비유된다. '콜럼버스의 달걀' 역시 자주 소환되는 은유다.

이 표현의 저작권은 피렌체 대성당의 돔을 설계한 르네상스 건축가 필리포 브루넬레스키(1377~1446)에게 있다. 조르조 바사리의 '미술가 열전'(1550)에 따르면 브루넬레스키는 자신의 설계를 조롱하던 경쟁자들 앞에서 달걀을 세우는 시연을 통해 "해내고 나면 쉬워 보인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 일화가 후대에 콜럼버스로 옮겨붙으며 오늘날의 은유가 되었다. 모티프는 살아남고 인물만 바뀐 것이다.

한국 현대사 또한 '콜럼버스의 달걀'로 가득하다. 민주화와 산업화, 올림픽 금메달, 월드컵 본선 진출, 한·소 및 한·중 수교, K-문화의 부상까지. 지금은 당연해 보이지만 모두 치열한 도전의 산물이었다. 남북통일 역시 언젠가는 그렇게 희고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 통일마저 제쳐두고 새로운 국가목표가 부상했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인공지능(AI) 세계 3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장이 아니다. AI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

청춘 특록

박 지 인
조선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4년

취재가 시작되자

오른쪽은 아파트 소유 땅이라는 이유로 서로 합부로 손을 맺 수 없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나 취재가 시작되자 구청과 아파트 시공사가 이른 시일 내에 해당 인도를 보수하겠다고 빠르게 답했다.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해결되지 않던 일들에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잘못을 인정하거나 대책을 마련한다. 보통 대중의 관심이 몰릴수록 공권력도 움직일 수밖에 없고 언론을 비롯한 온갖 매체에서 다른 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그 과정에서 이미지 훼손이나 책임, 경제적 손해 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곧장 대처하는 게 가장 피해가 적다고 생각할 것이다.

온갖 사건·사고를 쉬쉬하며 감추다가 언론의 취재로 공론화되면서 일어나는 파장을 두려워한다. 애초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몇 달 며칠을 피켓 들고 시위하는 시민의 외침보다 보도 한 줄을 더 무서워하는 것이다. 지난 4월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언론보도가 증가하자 종대재해 발생이 줄었다"라고 밝히며 이에 대한 상관관계를 증명하기도 했다.

특히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활발한 SNS를 통해 퍼진 시민들이 제보 영상이 언론사의 취재 자료로 쓰이곤 한다. 사실 학보사 기자로서 종종 학생들의 제보로 우선 관계자를 취재하다 보면 "규정상 안 된다"거나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민원과 같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답이 이렇게 돌아오면 모든 의지를 잃곤 한다. 사실상 해결하려는 노력을 없

고 모든 민원에 정해진 답처럼 날발하기 때문이다. 공론화가 되면 왜 곧장 규정이 바뀌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곤 한다. 또한 사건을 크게 키우지 말라는 의미의 은근한 압박도 많다. 그러나 되려 압박은 곧 언론의 힘을 증명한다.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까지 어떻게든 숨기려는 행위가 비겁하고 괴롭다. 그렇지만 취재가 시작돼도 꿈쩍도 안 한다면 그것대로 무서운 일일 것이다. 과거에 비해 신문의 힘이 약해졌지만 외부에서 압박받을 정도로 사회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다행이다. 여러 언론사에서는 '취재가 시작되자'를 주로 후속기사를 보도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다. 채널A의 경우 지난해 '취재가 시작되자' 홈페이지를 개설해 사건과 사연을 직접 제보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를 오픈하기도 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은 가끔 공권력보다 언론을 더 신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단어가 무섭거나 부끄러운 기업이나 기관이라면, 가급적 취재가 시작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보도에 나가면 일단 사과하고 시정하는 척하고 제도 개선이 아닌 '전시 행정'만 지속한다면 국민의 불신과 불만은 해결하지 못할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언론의 힘이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일시적인 사건 해결보다 근본적인 시스템이 왜 바뀌지 않는 것인지 짚고자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슬아슬한 장면이 연출되기에 이르렀다.

이제 집중호우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광주 천의 종합적인 수방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일차적으로 물이 흐르는 하상(河床)의 강폭 확대와 준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광주천은 시민들의 산책로와 경관조경을 위한 둔치가 다소 넓게 조성된 상황이어서 양쪽으로 최소 1m 남짓 축소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 강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하천 바닥도 지형구조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1~2m를 낮추는 작업을 병행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용봉천 등 복개된 지류천들도 정기적인 부유물의 제거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원상복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광주시와 비슷한 규모의 대전시는 상당한 예산과 인력의 투입으로 소규모 하천인 대전천과 갑천의 하상을 지속적으로 준설하고 정비하여 일정한 수심을 유지함으로써 상습 수해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소식을 들은 바 있다.

이울러 인위적인 방류수 퍼울리기 대신에 갈수기 방류수 확보와 흥수기의 수량 조절에 기여할 수 있는 중심사 계곡에 소규모 댐을 축조하는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본다. 소형 댐의 건설은 최대 유수량과 최소 유수량의 비율인 하상계수를 낮추는데 매우 유용한 대안이다. 풍요로운 물은 시민들의 마음을 여유롭게 할 수 있다.

유서 깊은 광주천이 생태의 보고로써 그 역할을 수행하며 광주시민들의 정서 순화와 아득한 휴식의 힐링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다 종합적인 흥수 예방의 노력과 둔치 및 산책로의 세심한 녹지조경 환경관리가 매우 절실한 시점이다.

기 고

광주천과 기후변화의 단상

김 형 주
전 광주역사민속박물관 학예실장

광주천은 무등산 장불재 샘골에서 발원하여 수 천년 동안 빛과 고장을 함께하는 진근한 생활 속의 동반자이며 이 고장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아닐 수 없다.

역사적으로 광주천은 건천(巾川), 조탄(棗灘), 조계(棗溪), 금계(錦溪), 서천(西川), 조탄강(棗灘江)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었고, 지금의 명칭은 1916년부터 사용되었다. 건천은 옛 지도에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오래된 명칭이며 조탄, 금계, 서천 등은 주로 이 지역 사람들을 중심으로 부르던 토착화된 이름이다. 그 가운데 조탄이 널리 쓰였으며 금계는 그 부근에 금계마을이 있어서, 서천은 광주읍성의 서문 옆으로 흐르기 때문에 붙여졌다. 조계는 조탄의 순회된 표현으로 조선 중기 광주 양림동 출신의 문신관료 정만종은 자신의 아호를 고장의 강에서 따서 붙이기도 하였다.

사실 이보다는 광주상공회의소 부회장을 역임한 고 박선홍 선생의 증언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그는 일제강점기인 1925년 광주천 직강화 공사 이전에는 유역의 범위가 옛 전남도청 부근에서 양림산 밑자락에 이를 정도로 드넓게 형성되어, 광대한 백사장의 일부는 장터로 사용되고 대부분의 하천부지는 조(서숙)를 심

社 說

여성특구로 전략공천 민주 광주시당 왜 이러나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 광역의원 선거구 20곳 가운데 4곳을 '여성 경쟁 전략 선거구'로 지정했다.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는데 공천이 곧 당선이나 마찬가지인 텃밭에서 사실상 여성 의원 4명을 내리꽂겠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특구 4곳은 서구·남구·북구·광산구 각각 한 곳씩으로 광산구의 경우 당초 4선거구를 지정했다가 12년 동안 여성과 청년에게 할당된 지역구라는 지적에 하루 만에 5선거구로 바꾸는 원칙 없는 모습을 보였다.

가장 맏 많은 선거구는 서구 3선거구로 이 지역구 협의 남성 의원이 지난 총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시당위원장의 경쟁자를 지지한 것이 여성 특구 지정 배경이 아니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여성 30% 의무공천 비율이 있어 여성특구 지정을 무작정 비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정재 지도부는 이번처럼 선거를 불과 6개월 앞두고 갑작스럽게 전략공천을 추진한다면 열심히 텃밭을 갈아온 후보자의 선택권을 빼앗는 역차별이자 사전(私轉) 논란을 피할 수 없다. 광주시당의 전략공천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 민주당 지도부는 광주시당의 결정이 당원들은 물론 광주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공공발주 선례 남긴 지하철공사 피해 상권 지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 구간 도로가 6년 만에 전면 개방됐다. 1단계 구간 전체 17km 가운데 백운광장 등 4곳을 제외한 16.3km가 개방돼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강기점 광주시장이 직을 걸고 23일까지 도로를 개방하겠다고 배수진을 치고 어제 개방행사를 할 정도였으나 시민 불편 1호 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민들이 이겨운 교통 불편 못지 않게 공사장 주변 상인들이 겪은 상권 피해도 커다란다.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용객들의 발길이 끊겨 심각한 매출 하락을 경험했고 소음과 진동 피해도 심각했다.

광주시가 지하철 공사로 명든 상권 회복을 위해 120억원 규모의 긴급 지원책을 내놓은 것은 공공발주 공사 피해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로 환영할 일이다. 지원책은 내년 1월부터 2개월간 공사 구간 인근 가맹점에서 상생카드를 사용할 경우 20%의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이다. 6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3개 동 5700여곳의 가게가 대상이다. 지난해 해소를 위해 양제당 최대 5000만원의 특례보증과 1년 간 3~4%의 이자 차이보전을 하는 금융 지원도 포함됐다.

광주시의 피해 상권 지원은 교통 인프라 구축 비용을 소상공인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을 수용한 적극 행정이라고 할 만하다. 지금까지는 공공발주 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 등을 제기해 피해를 복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피해자에게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것은 공공기관의 간접적이다른 것이다.

無 等 鼓

'희망'이라는 말은 참 아이러니 하다. 미래를 꿈꾸게 하지만 대부분의 꿈은 이루지 못한 안타까움으로 남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희망한다는 것은 동시에 그것을 잊을 수 있다는 두려움까지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두려움 없는 희망 없고, 희망 없는 두려움도 없다"고 했다.

희망은 깨어있는 자들의 꿈. 즉 낮에 꾸는 꿈이다. '밤 꿈'은 잠을 자며 꾸는 무의식의 세계고 '낮 꿈'은 의식의 세계다. 또한 밤 꿈은 개별적으로

꾸지만 낮 꿈은 공동체가 함께 꾸기도 한다. 공동체의 낮 꿈은 '흔자기' 아닌 우리라는 생각으로 두려움 없이 나아갈 때 힘을 발휘한다. 전두환 일당에 맞선 광주 5·18이나 1987년 6월 항쟁, 그리고 12·3 내란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킨 빛의 혁명이 그렇다.

낮 꿈이 세계 곳곳에서 실시간으로 이뤄지거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이루어진다. 모두가 '12번 선수'로 대표팀 선발에서부터 팀의 운영 그리고 작전까지 함께해야 다시 한 번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대망의 2026 FIFA 북중미월드컵 조 추첨에서 한국은 멕시코·남아공·유럽 플레이오프 D조(덴마크 북마케도니아 아일랜드 체코)의 승자와 함께 A조에 편성됐다. '죽음의 조'는 피했지만, 누군가의 표현처럼 '곤혹과 해볼 만한 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절대강자가 없고, 4팀이 물고 물리는 난전이 전개될 수도 있는 말이다. 문제는 힘겹게 조별리그를 통과해도 32강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데 있다.

16강 그 이상을 꿈꾸는 한국 팀으로서는 조 1위나 2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2년 한일월드컵에 서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은 '꿈★은 이루어 진다'는 구호 아래 거리와

가정, 그리고 경기장에서 희망의 '낮 꿈'을 함께 꾸었다. 전국을 달군 뜨거운 염원이 광주에서 4강 신화를 쓰게 했다. 밤 꿈처럼 낮 꿈에도 길동과 흥몽이 있다. 목표를 달성하면 길동이고 좁절되면 흥몽이다. 낮 꿈은 실천하면서 희망할 때 이루어진다. 모두가 '12번 선수'로 대표팀 선발에서부터 팀의 운영 그리고 작전까지 함께해야 다시 한 번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유제관 제작총괄국장 jkyou@

光 星 日 報
회장·발행인 金汝松 |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 FAX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 문화 부 220-0649 | 문화 부 220-0624 | 경영 지 원 국 220-0515 | 문화 사 입 국 220-0541
정 치 부 220-0634 | 예 향 부 220-0692 | 기획 관 리 국 222-9600 |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48 | 여 론 매체 부 220-0661 | FAX 222-0195 |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